



© 2017 LITTLE HOME & C Program. All Rights Reserved.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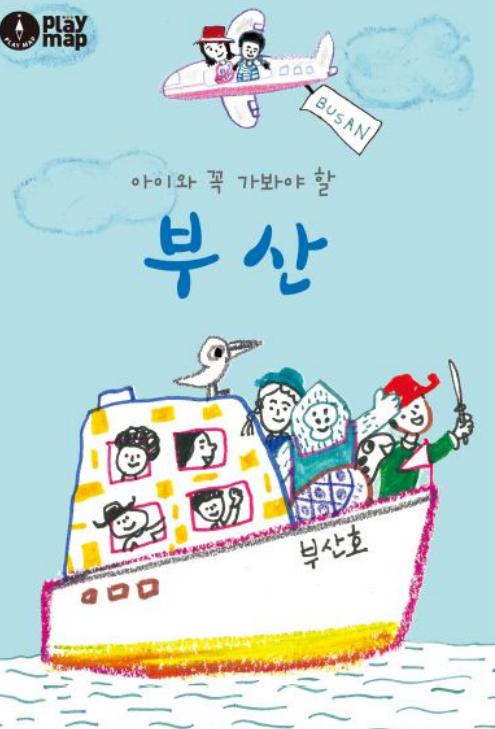
C-Program
Little Home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3.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2.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1.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1.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북구 회령동 양달로44 | 051-333-224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회령동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민간 도서관으로 돌봄과 소통이 있는 마을도서관을 꿈꾸며 운영되고 있다. 서가를 만드는 것부터 도서관을 쓸고 닦는 일까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모임과 문화활동도 열린다. 그림책, 만화책, DVD 등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도 많아 언제 누구와 찾아도 좋겠다.

도서관 바로 옆에는 작은 공원과 친 미끄럼틀이 있다.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물가가 높아지는 대천천도 만날 수 있다.

2. 화명수목원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299 | 051-363-0261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09:00~17:00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아이와 거닐기 좋은 숲으로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비롯하여 수생식물이 자라는 연못, 열대식물이 자라는 온실 등 다양한 식물을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작은 동물원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속에 나들이는 더욱 풍성하다. 수목원 곳곳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 한 권 글과 읽는 시간도 참 좋다. 먹거리는 판매하지 않으니 도시락을 헹개기자.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75 | 051-553-4944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세월이 느껴지는 첫 인상으로 이곳을 판단하는 것은 굳이이다. 전세계에서 모은 바다 생물의 표본이 어찌나 풍부한지 끝도 없이 펼쳐진다. 실물 고래상어 표본만도 세 개나 전시되어 있다. 박제된 생물이 지루해질 때쯤엔 살아있는 파충류를 만날 수 있는 열대생물체험관이 나타난다. 바다생물에 꼭 빠져있는 아이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놀이터다.

인터넷예약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는 어린이 해양 체험관이 있다. 인기가 많아 부지런히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다.

4. 119 안전체험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17 | 051-760-5870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일 09:00~15:15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휴관

부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태풍, 지진, 원전의 위험성과 대피방법을 천절한 소방관님의 설명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자. 직접 체험까지 해보니 실제 재난을 만나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연행에 따라 체험코스가 달라지며, 초등학생 이상 코스는 성인도 참여할 수 있으니 열심히 배워서 우리 가족 안전은 우리가 지키자.

5. 물속도생태공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강로 1240 | 051-209-2000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월요일, 1월1일 휴관

개발로 해손되었던 물속도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이런 노력의 의의를 들을 수 있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이 되었다. 공원에서 강바닥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뛰놀면 자연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물속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에코센터와 습지를 노고하고 있는 반가운 철새들을 발견할 수 있는 탐조전망대도 꼭 함께 들려 물속도의 친모습과 의미를 제대로 만나보자.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에코센터의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속도의 진짜 자연 속으로 들어가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6. 부산어린이대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속로 295 | 051-860-7848
주 소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울창한 편백나무 숲과 호수, 등을원과 어린이화관, 교룡나리와 물들이강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한곳에 모여있다. 자연을 벗어나 술을 산책을 하기에도, 다양한 체험을 하며 신나게 뛰어 놀기에도 좋아 언제 누구와 찾아도 좋겠다.

7. 책과 아이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16번길 20 | 051-506-1448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30~19:30 |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의 행복을 알리주기 위해 설립된 서점 겸 문화공간으로 성장과 만족으로 고른 어린이 책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날 수 있다. 판매용 책 외에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책과 편집 앤솔러 수 있는 공간, 문학장을 느낄 수 있는 마당이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넉넉히 제공된다.

★ 책과 아이들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경장도서 목록과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문화행사에 초대된다.

8. 부산시민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 051-850-6000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 휴관

미군기지대로 사용되었던 땅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멋진 공원이 되었다. 넓은 잔디밭과 시원한 물줄기를 뿐은 별로 다른 게 아니지만 멋진 놀이터와 기대한 어베어원스, 정글짐과 4D 영상관, 빌로로 도서관까지 공원 곳곳에 드넓은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간단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키페테리아와 수유실까지 잘 갖춰져 있으니 하루 종일 놀아도 걱정 없다.

9. 이바구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53 초량교회 | 051-467-0299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휴관

풀 한 번에 걸어서 놀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기난한 피난인 동네. 가파른 계단이 없어 어여지던 마을에 귀여운 모노레일이 등장했다. 느릿느릿 언덕을 오르는 모노레일을 타고, 구멍개기도 기우거려보고, 어르신들이 차례주시는 옛날 도시락도 맛보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키페에 앉아 두루두루 이야기 나누기에 꽃 좋은 경꾼을 놓는데.

★ 이바구길을 걸어서 놀아보는 것이 어렵다 느껴진다면, 부산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이바구 자전거 투어를 이용해보자. 동네의 역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전기자전거를 타고 편안히 놀아볼 수 있다.

10. 감천문화마을

부산 사하구 금마2로 203 | 051-204-1444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일 09:00~17:00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휴관

알록달록 생강밭 같은 집들이 빽빽히 늘어선 산비탈 마을. 생활의 고단한 민족이 기득했던 산동네가 지자체와 주민, 예술가들의 힘으로 유품해졌다. 아이도 어른도 둘러날락 골목 구경을 하며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좁고 긴 길을 돌아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만 마을 속에서 내려다보는 파란 하늘과 어울린 마음은 눈达不到마 토포준이다.

★ 감천문화마을을 찾을 즐거움과 여행하고 싶다면, 스템프 투어에 도전해보자. 마을 곳곳에 숨겨진 스템프를 찾아 모으는 재미가 출출하다. 마을길구 애니소에서 스템프 투어용 마일지도를 구입할 수 있다.

11. 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전항로 | 051-207-6041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휴관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만들어진 해수욕장으로 다양한 바다생물이 살고 있는 깨밥을 만날 수 있다. 해수욕장에 마련되어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에서는 무료로 강화와 체험도구까지 빌려

주니 몸도 마음도 가볍게 놀라 갈 수 있다. 부드러운 모래에 비단 물도 깊지 않아 물놀이를 하기에도 좋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수영선을 놓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까지 보고 돌아오면 하루가 끝난다.

★ 4월~8월까지 매일 저녁 음악분수가 운영된다.

● 시간이 많다면 어린이전망대도 함께 들러보자. 전망대 자체도 아름답고 낙동강과 모래들이 빛나는 풍경이 장관이다.



12. 영도대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 1670-8114
주 소 - 월요일 10:00~14:00-15:00
월요일, 일요일 10:00~21: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우리나라 유일의 도개교. 매일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다리 상판이 들어올려진다. 다리 15분 정도 들어올려져 있으므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옆에서도 위에서도 강상해보자. 옆에서 보면 들어올려지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다리 위에서라면 땅이 솟아 오르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 바다에서 영도대교의 도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하는 부산항만 안내선 승선체험을 신청해보자.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영도대교 보고 돌아가기가 어렵다면 근래역사관에 들러 부산의 옛모습을 살펴보고, 부산수공원 전망대에 올라 부산항을 내려다보아도 좋겠다. 보수동 해��골목에서 오래된 책들을 뒤져거나 국제시장에서 재민원 물건들과 맞난 머리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 해수욕장 뒤편으로 죽죽장이 마련되어 있다. 해수욕으로 추위 진 물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금방 데워진다.

17. 부산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 051-744-2602 | 월요일 휴관

● 평일~일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21:00
부산의 미술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어린이 미술관이 있어 아이와 함께 둘러도 부담이 없다. 아이들의 눈과 마음에 닿을만 한 쉽고 재미있는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전시가 바뀔 때마다 찾아뵙자. 어릴때부터 차근차근 관심예절을 익힌다면 어떠한 전시관람도 문제없다.



18.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22:00
일요일~화요일 09:00~23:00
수요일~일요일 09:00~24:00
월요일, 희요일, 공휴일 휴관

말이 필요 없는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 끝없이 이어지는 하얗고 고운 모래사장과 잔잔하게 깊어지는 바다. 바쁜 핫살이 어울리지 않아 이곳에서 해운대구나 싶다. 주변에 식당과 카페 같은 편의시설도 많고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는 기간에도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계속되니 언제 찾아도 좋겠다.

★ 해수욕장 뒤편으로 죽죽장이 마련되어 있다. 해수욕으로 추위 진 물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금방 데워진다.



19. 동백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10-1 | 051-749-7621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 09:00~21:00
동백꽃으로 블레드 물들던 섬은 오랜 세월이 쌓여 육지와 연결되었다.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푸른 숲을 풍기며 친환경적인 조경으로 아름다워 찾는 관광지이다. 둘 뿐에 해운대를 아로새긴 신라 최초왕의 솜씨와 활동공주 천설이 있던 인연상,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함께 모였던 누리마루 등 섬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는 재미는 끝이다.



20. 아홀산숲

부산광역시 기장군 절마면 미동길 37-1 | 051-721-9183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월요일 휴무, 평일 방문시 예약 필수

남평문씨 가문이 몇 대에 걸쳐 지켜온 깊고 깊은 대나무 숲. 충족히 우거진 대수 사이를 마음껏 헤치며 기쁠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모험심 많은 어린이라면 곳곳에 숨어있는 자연을 놀이터가 무척이나 좋다. 대나무에 빛을 뿜어 환한 간소한 놀이터지만 그곳을 넘고, 오르고, 지나며 춤리는 맘발들은 몹시 같다.

★ 대숲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해충과 나무뿌리 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긴팔과 긴바지, 운동화 등 복장을 잘 갖추어야 한다. 여름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겨울에는 두꺼운 장갑과 모자를 끼고 놀아야 한다. 아침에는 대나무 숲에서 빛을 뿜어 환한 간소한 놀이터에 놀기보다는 대나무 숲에서 빛을 뿐이 같다.

● 3~10월 04:00~24:00, 11~2월 05:00~24:00
다누비열차 09:00~18:00

예부터 왕이 향을 옮기도록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깨끗하고 높이 솟은 바위 절벽과 하얀 등대, 푸른 바다가 그림 같다. 날이 좋으면 멀리 대마도까지도 한눈에 들어온다. 태종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순환도로를 따라 걸거나, 다누비 열차를 타고 오르거나, 유람선을 타고 바다 속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으니 가족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보자. 걸기나 멀치를 타기로 했다면 영도동대에 둘러 꼭대기까지 올라보는 재미를 놓치지 말자.

21. 국립부산과학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절마길 37-1 | 051-750-2300
주 소 - 월요일~금요일 09:30~17:30 |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 휴관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미끄럼틀이 맞이하는 과학관은 신기하고 새로운 놀이터 같다. 전시실은 자동차, 우주, 선박, 어너지 등 미운 주제가 가득하고 애완공간도 뛰어 놀기 좋다. 천체투영관과 어린이 체험관까지 기쁜 마음으로 놀러 다니다보면 어려운 과학 개념도 귀에 쑥쑥 들어오게된다.

